

크스님 수행한담

눈깜짝할 사이 임종맞아



70년전 용성스님을 시봉한 경운스님은 용성스님이 주창한 대각교운동이 이어 지킬 비리는 마을에서 서울 대각사에 주석하고 있다. 1992년 대각사에서 주지 도문스님, 선방수좌스님들과 함께한 경운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

에도 수행과 포교의 대보살을 계속 이어 가셨습니다. 스님은 이 세상 모든 일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에서 부터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조국의 독립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까지 결함과 막힘과 고통이 없는 바른 세상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나아가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불교를 믿습니다. 참선과 염불은 진리를 깨닫

“과학이니 문명이니 하면서 잘난 체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 속는 줄도 모르고 허송세월하니 안타까워요”

랑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때에도 그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의연했다고 합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꿈과 같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속을 헤매고 다녀서 어떻게 불도를 수행해야 하는 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 불자들부터 밖으로 정진해 이 세상을 밝히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합니다.

“삼불급중생이 사삼무차별(心佛及眾生是三無差別)이라. 내가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와 중생을 모두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강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근본 마음자리는 우리 중생이나 부처나 다 한가지예요. 그런데 알음알이로는 누구나 아는데 깨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정체를 분명히 알기란 쉽

할 수 없이 하나의 바닷물이지요. 우리의 모든 생명체도 겉으로 보기에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그 마음만 알아버리면 내 마음이 그 마음이요, 일체 중생의 마음이 텅텅만큼 차별없는 동일한 마음자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최초로 경성 오도해 보니, ‘참으로 회한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어찌면 나와 같은 그 자리를 구비해 있는가’라며 감탄한 것이지요. <화엄경>의 심불급중생이 사삼무차별이라는 말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료하고 간단하고 쉬운 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중생들은 그저 밖으로 생각에 따라가며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압니다. 기쁜 생각, 슬픈 생각, 미워하는 생각, 공포에 떠는 생각 등 무한히 일어나는 온갖 생각의 그림자에 따라 헤매면서 웃고 울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지요. 그 일어나는 생각은 모두 찰나 찰나로 번개가는 것들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며, 마음의 과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초점, 생각이 일어나는 뿌리를 풀이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에는 일체의 고통, 갈등과 불안, 초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아요. 항상 생각의 반복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다생겁대로 그 습관에 젖어 생활해 온 탓입니다.

90이 넘게 살아오다 보니 지난 날이 모두 한순간이고 그림자에 매달려 살아왔음을 알겠습니다. 젊었을 때야 인생 100년이 무척 긴듯 싶지만 사실 눈 깜짝 할 사이에, ‘내일 하지 뭐’ 하며 미루다보면 뒤 뒤 후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장 이순간부터 인생의 근본 목적, 자기의 본래면목을 찾는 공부를 시작하세요. 나(我), 그 핵심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의심을 품고,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항상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마음공부하다 보면 어제의 범부가 오늘 산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세상 어지러울수록 불자들 더 정진해야” “오늘을 부처로 사는법 마음쓰기에 달려”

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님들만 참선 염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참선과 염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쉽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강조하셨던 스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불자들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참선을 염불과 함께 지도하시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온갖 힘을 기울이셨지요. 하지만 스님이 돌아가신 뒤로 선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채 그냥 보통 절로 명맥을 이어 내려왔는데, 현 주지 도문스님이 대각사 선방을 맡아달라고 나를 찾아와서 선방을 한 지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용성스님의 정신을 잇기위해 선방을 다시 열어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지도했었는데, 지금은 수좌들도 재가불자들도 다 나가고 내가 혼자서 선방을 지

한다면 배고픈 밥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처럼 쉬운 일이지만 또 어렵다고 한다. 먼 생애를 다버쳐 밝히려 해도 한 없이 어렵기도 한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그 본래 마음자리를 바로 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 마음만 바로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밝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한히 일어나는 회노악의 상념, 생각으로 끌려가서 본 마음 자리를 망각해 버립니다. 뱀뱀개의 강은 모두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강으로 있을 때는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또한 한강, 대동강, 두만강이라 달리 불리지만, 한 번 바다에 모여들면 이전의 모양과 이름은 없어져 따로 구별

나의 경전



장로니게



최경아 워릭대 강사

과정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신선하다. 종교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나는 붓다의 초월적인 모습보다는 팔리경전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인간적 풍모에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낀다. ‘권능’이나 ‘절대’니 하는 수식어 보다는 ‘고뇌’라는 실존적인 명제가 보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향의 중생이기 때문인가 보다. 실제로 팔리경전에 나타나는 붓다의 모습은 형이상학의 부질없음을

계급 출신이 4명, 참녀가 4명,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1명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이 상류계급이지만, 참녀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불교가 인도사회에서 얼마나 열려있는 종교였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장로니게>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세속에서 평탄한 삶을 영위하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했던 기구한 사

73 비구니스님 깨달음 향한 노래 인도에서 뛰어난 서정시로 평가

학력이 높고 연륜이 있어 대중의 존경을 받는 비구니를 말한다. <장로니게>는 바로 그러한 비구니들의 자기 고백적 노래로서, 당시 인도의 사회상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것은 1계(偈)로만 이루어진 시승으로부터 시작해 2계, 내지는 70여계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계를 그 수에 따라 분류하여 1계만을 남긴 장로니의 계를 모아 1집이라고 하고, 2계는 2집, 3계는 3집, 이런식으로 70여계의 것을 대집으로 편찬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으로서 애환과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시로써 전달하고 있는 <장로니게>는 그 시가 지닌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인도 서정시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각 계승의 주인공은 모두 유명한 비구니로서, 이들 가운데 다수가 깨달음을 성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성별에 인색했던 대승불교에 비하면 당시의 승가 오히려 진보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니게>에는 모두 73명의 비구니 이름이 보인다. 이들의 출신성분을 보면 왕가 출신이 23명, 부왕 출신이 13명, 바라문 출신이 18명, 그리고 다른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타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경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자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우에서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는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 및 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종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